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초로키 모빌홈**

가격: 19만 / Cash (1Bed + Den)  
 위치: OC (비치& 링컨), 초로키 모빌홈  
 월 약 \$500 + 유틸리티  
 10년후 \$211 + 유틸리티

**213.505.8577 Mr. Lee**

#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사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서 독·일 브랜드 판매 성장률 '추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판매 증가율이 독일·일본 브랜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 가 미국 자동차 전문 주간지 '오토모티브 뉴스' 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71만4대, 61만5천338대 판매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4.7%, 기아차는 4.4% 성장한 실적이다. 현대차그룹 실적으로 묶으면 판매는 총 132만5천342대, 판매증가율은 4.6%다. 그룹 실적으로 보면 시장점유율도 전년 7.3%에서 7.7%로 0.4%포인트 높아졌고, 전년에 이어 미국 판매 7위를 지켰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보다 1.2%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위축됐다. 홀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미국 업체는 물론 독일, 일본 등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국 판매 1위인 지엠(GM)은 전년보다 실적이 2.3% 줄었으며 2위에 오른 미국의 포드(-3.2%)나 3위 일본 토요타(-1.8%), 4위 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FCA·-1.4%)

도 실적이 뒷걸음질했으며 5위에 오른 일본 혼다(0.2%)가 5위권에서 유일하게 판매 상승을 기록했다. 판매 6~10위권에서도 일본 브랜드인 닛산·미쓰비시(-9.0%)는 고전했고, 스바루(2.9%)가 판매 70만대를 넘기며 선방했다.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폭스바겐(2.4%), BMW(1.8%), 벤츠(0.8%)등 독일 3사는 모두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됐지만, 현대·기아차 성장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강세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선전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 팰리세이드는 작년 6월 미국 판매 시작 이후 7개월 만에 2만8천736대를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고, 기아 텔루라이드도 호평 속에 5만8천604대 팔려나갔다. 고수익 모델인 이들 두 대형 SUV 선전과 함께 소형 SUV 코나 역시 전년보다 판매가 55.7% 증가하며 판매에 기여했다.

제네시스 G70도 작년 1만1천901대 팔려나가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 테슬라, 중국 생산 본격화 ... 주가 급등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생산을 본격화하며 중국 현지 생산 차량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

8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전날 상하이 의 자사 기가팩토리(전기차·부품공장)에서 중국 생산 '모델3' 의 첫 고객 인도식을 열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3 가격을 기존 33만 위안(약 47,000달러)에서 29만9,000위안(약 43,000달러)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시된 가격보다 10% 가량 싸진 것이다. 테슬라는 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델Y 생산에 들어간다고도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3.88% 오른 469.06달러를 기록했다.

머스크 CEO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총 500억 위안 규모를 투자해 상하이에 자사 기가팩토리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준공에서부터 양산 허가 획득까지 전 과정을 초고속으로 마무리했다. 중국 정부로서는 테슬라의 투자가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의 개방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선전물이 된다며 환호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막장' 으로 물리고 있다. 중국에서 이미 전기차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지난해 11월 중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에너지 총량이 6.3GWh에 그치며 전년동기 대비 33.1%나 줄었다고 밝혔다. 배터리에너지 사용이 줄었다는 것은 전기차 판매와 사용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축소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한때 점유율 3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오펜티나노에너지가 지난해 12월 파산을 신청하는 등 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 '포에버21', 파산보호 신청 이어 '허위 매출' 논란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미국 패션기업 포에버21이 매출 전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포에버21은 1984년 한인 장도원·장진숙 부부가 공동창업한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이다.

9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앨라배마 소재 쇼핑몰 소유주 앨라이드 디벨롭먼트는 지난해 11월 텔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포에버21이 자사와의 임대계약에서 매출 전망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앨라이드는 지난 2017년 매장 월매출의 5%와 연매출의 1%를 받는 조건으로 포에버21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앨라이드에 따르면 당시 포에버21은 인근 다른 매장의 연매출이 600만 달러라며 앨라이드에도 같은 규모의 매

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인근 매장의 연매출은 200만 달러에 불과해 포에버21이 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앨라이드는 주장하고 있다. 같은해 앨라이드 소유 포에버21 매장의 연매출은 160만 달러에 불과했다. 앨라이드는 포에버21에게 매장 내부 공사 등의 투자비 21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소 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포에버21은 이에 대해 파산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보호법에 따라 포에버21은 채무이행이 유예되는데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더 많은 채권자들이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에버21은 지난해 9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800여 개의 점포 중 최소 178곳을 폐쇄할 계획이다.

Commercial & Residential 부동산 투자 및 1031 Exchange 도와드립니다.

**독점 Home for Sale / Lease 독점**

**Yorba Linda - 단독주택**  
 1,780 sq.ft, 2,500 sq.ft. (LOT) 2016 Built (새집)  
 \* 최고 학교 (Lakeview Elementary, Yorba Linda Middle, El Dorado High)  
 \* WholeFood, BlackGold Golf장 근방 **\$739,000**

**La Mirada - 단독주택**  
 3 Beds + 2 Baths 1,522 sq.ft, 6,500 sq.ft. Lot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 / 조용한 단층집  
 수영장 / RV parking / 과일나무  
 private BBQ and Patio **\$679,000**

**Fullerton - Luxury LOFT**  
 2 Beds + 2 Full Baths plus private ELEVATOR  
 1,849 sq.ft, 2 Car Attached Garage  
 View View View!!! **\$549,000**

**IN ESCROW** **독점 New Listing**

**Fullerton 단층주택 \$875,000**  
 (가격 Nego 가능한 집)  
 4 Bed + 2 Baths, 2,190 sq.ft,  
 10,600 sq.ft. Lot 3 CAR GARAGE  
 \* 좋은 학교 (Sunny Hill High & Parks Jr. High)  
 \* Laguna Lake & Parks 있는 조용한 동네  
 \* 현재 매물 없나온 집 (Pocket Listing)  
 \* Upgrade Driveway, Laminate Floor  
 Dual Paned Window, View

**3일만에 "Multiple CASH OFFERS" 받았습니다.**

**마켓에 나오지 않은 집 삽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찰스 SELL OC HOMES**



**상담문의 찰스 리**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짧은시간에 좋은가격으로 집 팔아드리거나 사드립니다!**

**Commercial Retail**

**LEASED**

단독 건물: 9,230 sq.ft,  
 Fullerton Costco 건너편  
 Over \$100,000 New Improvement  
 READY TO MOVE-IN JAN 2020,  
 LEASE OR SALE 담당 Broker 찰스에게 문의주세요

**독점 비즈니스 for Sale !!!**

**Japanese Fusion All You Can Eat**  
 [North Orange County]  
**\$200,000**  
 Store size: 3,800 sq.ft. (코너 자리 & Easy Parking)  
 \* Asian & American [Mid - High Income Area]  
 \* 요식업 중심가  
 \* 현재 저녁에만 OPEN 합니다. (NO LUNCH)  
 \* Gross Income: 매상 Average \$65,000 ~ \$70,000

**North OC 식당**  
**\$315,000** Store size: 1,500 sq.ft. (Fullerton Down Town)  
 \* Asian & American [Mid - High Income Area]  
 \* Beer & Wine Lic Available \* High Foot Traffic  
 \* 현재 저녁에만 OPEN 합니다. (NO LUNCH)  
 \* Gross Sale: Average \$50,000  
 \* Rent: \$7,000